한국장애인개발원

#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 성인권 교육 매뉴얼

전문가용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비로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각 집필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목차

CONTENTS

1. 이론적 배경 ····· 4

2. 필요성과 목적 ····· 6

3. 매뉴얼의 구성 ····· 7

4. 회기별 강의안 구성 및 사용 방법 ····· 8

1회기 인간 성의 특성 ····· 9

2회기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 17

3회기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 인권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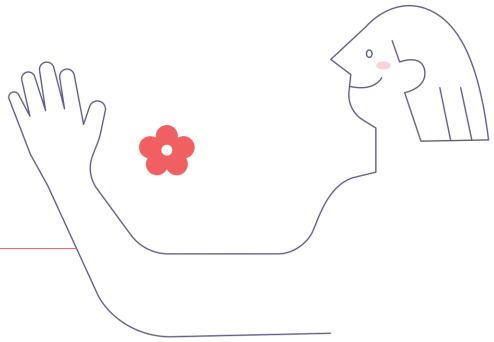
4회기 성적 발달의 기초로서 자기인식과 자존감 ····· 35

5회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 43

6회기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 51

7회기 생활 속 성교육 ····· 59

8회기 함께 성장하기 ····· 67



## 1. 이론적 배경

완성되어 가는 사회-문화적 존재로, 본능에서 벗어난 “인간”

성은 단순히 생식기 관련된 활동만이 아닌, 인간의 총체성, 인격에 관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이는 성교육도 인간의 총체적 측면을 다루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것은 다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한 셸러, 니체, 겔렌, 칸트 등은 인간을 본능이 결핍된 존재로 규정한다. 그들은 동물이 완벽한 본능에 따라 그 환경에 몰입하고 의탁해서 살아가는 반면, 인간은 본능이 풀려났기에 자유롭게 행위하면서 세계를 창조하고 자신이 만들어 낸 문화에 의탁해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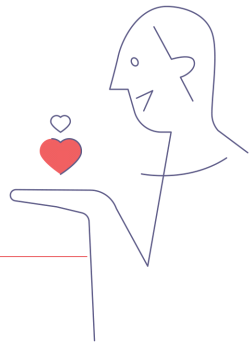
셸러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생득적으로 기관적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태어났기에 무능력하다고 한다. 이 무능력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파악한 자기규정에 따라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인간 되어감’, 즉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본능이 결핍된 존재로서,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성적 행위는 동물의 본능처럼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생겨난 후천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완성되지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자신을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목적인 존재라고 니체는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불완전한 본능을 지녔기에 교육되어야 하며 또 생존을 위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사회-문화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이런 자기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는 존재라고 니체는 규정한다.

인간을 행위하는 존재로 보는 겔렌은 특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에 인간에게 자신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인간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한 인간은 스스로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자신을 무언가로 만들어간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음'은 인간의 물리적 조건이고 본성이다. 이 점에서 인간은 길들어져야 할 존재로, '스스로 길들임'이라는 교육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칸트도 인간이 기관적으로 수단이 없고, 본능이 결핍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 의존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며, 또한 생존을 자신의 고유한 업적으로 삼아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기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결핍의 조건을 스스로 생존의 기회로 가공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행위하는 존재라고 한다.

셸러에게 인간은 세계개방적 존재로서 자신을 대상화시킬 수 있고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자신을 타자화시킴으로서 삶의 현상에 부정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고유한 충동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도덕적, 사회-문화적 존재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억제하지 않은 성 충동에 의해 내몰리는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하였다. 반면, 사회-문화적 인간은 사회와 도덕의 인습을 대표하는 초자아와 특정 문화에 맞는 행동을 지시해 주는 사회규범과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 산다. 헤르더 역시 동물은 충동 속에서만 의미를 충족시키지만 인간은 본능이 결핍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동물적 조직에 기초하는 게 아닌 사회규범과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 2. 필요성과 목적

본 가이드북은 구어 이해와 지시수행이 가능한 사춘기의 발달장애인을 둔 주 양육자가 생활 속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칠 성인권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발달장애인성교육은 발달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환경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개 주 양육자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도 사춘기를 겪으며 성적-사회적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주 양육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사춘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주 양육자가 발달장애인의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발달장애인에게 사춘기에 대해 알려줄 수 없고 그 결과 발달장애인은 혼란과 불안을 갖게 된다. 혼란과 불안, 엄청난 에너지 분출을 경험하는 사춘기 발달장애인은 종종 자해와 타해, 기물 파손 등의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물론 주 양육자와 주변인을 당혹스럽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사춘기에 많은 주 양육자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 이유는 주 양육자가 일반적인 성과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지닌 통념, 발달장애, 우리 사회의 성문화, 그리고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춘기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주 양육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 두려워하고 답답해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주 양육자와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발달장애인의 성과 성적 발달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성교육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주 양육자는 성장하는 사춘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을 생활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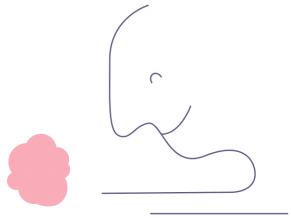
궁극적으로는, 본 가이드북은 주 양육자가 발달장애인의 '인간되어감'의 여정 안에서 그들의 성적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 3.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가르칠 성인권 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8개 주제가 제시된다. 주제들은 핵심 개념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 “발달장애인”, “사회의 성문화”, “생활 속 성교육”이라는 총 4개 영역으로 범주화 된다.

**성인권 교육의 영역과 주제**

| 주제 | 영역 | 집필인 |
|---|---|---|
| 1. 인간 성의 특성 | 인간의 성 | 정진옥 |
| 2.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 발달장애인 | 유혜종 |
| 3.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인권 | | 정진옥 |
| 4. 성적 발달의 기초로서 자기인식과 자존감 | | 정진옥 |
| 5.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 | 최경화 |
| 6.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 사회의 성문화 | 최경화 |
| 7. 생활 속 성교육 | 생활 속 성교육 | 정진옥 |
| 8. 함께 성장하기 | | 정진옥 |



## 4. 회기별 강의안 구성 및 사용 방법

본 매뉴얼은 총 8회기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기는 주제, 목표와 세부 목표, 배경 정보, 교수 범위, 교수 내용, 평가, 도움되는 문헌 등을 포함한다. 각 회기마다 성취되어야 할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이 제시된다. 배경 정보는 해당 회기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한눈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간단히 제시되는 교수 범위는 그 회기에서 다루어질 세부 내용의 윤곽을 그려준다. 교수 내용은 교수 범위 안에서 기술적으로 제시된다. 내용은 향후 전문가들이 주 양육자 교육시 사용할 ppt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각 회기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세부 목표에 대한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의 도움되는 문헌에서는 각 회기 주제의 내용 출처를 밝힐 뿐 아니라 심층 학습에 도움이 될 문헌을 알려 준다.

본 매뉴얼은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를 교육할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주제들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그들에게 구체적인 교수안을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수안은 본 매뉴얼을 통해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만나게 될 주 양육자들에게 맞추어 스스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움되는 문헌**


- 박만준 역(2011), “최초의 인간과 그 이후의 문화”,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이을상 역(1998), “인간학적 탐구”, 이문출판사.

01

# 인간 성의 특성

## 목표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 세부 목표

1. 인간의 성 본능이 동물의 성 본능과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의 세 가지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3. 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배경 정보

성교육자는 단순히 성과학적 지식이 아닌 성을 지닌 총체적 인간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1회기에서는 인간의 성 본능이 동물의 성 본능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성을 지칭하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의미와 각각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성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 교수 범위

1. 인간의 성 본능
2. 성의 세 가지 의미와 가치
3. 성에 대한 태도(가치관, 윤리관)와 사랑

**교수 내용**

## 1. 인간의 성 본능

프로이트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성 본능이 억압되기 시작했고, 성적 표현은 여러 변형된 모습으로 금기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문화와 역사 안에서 다양하게 억압되어 온 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할 고려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관점, 행동이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수용되고 학습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대부분 그 시대 안에서 학습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성도 동물의 성처럼 본능이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물학적으로 본능이 결핍되었거나 성 본능이 퇴화된 존재라고 겔렌과 로렌츠는 말한다. 인간의 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만큼 '만성적'이라고 한다. 인간은 본능에서 풀려난 존재이기에 계속적인 충동을 형성하고 이 충동은 좀처럼 고갈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능의 결핍 때문에 인간은 본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불완전한 본능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며, 본능대로 행동할 때 파멸하거나 동물 이하의 존재로 전락한다. 생존에 필요한 완전한 기관을 갖지 못하고, 본능이 결핍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인간은 본능의 지배를 덜 받게 된 것이다.

인간은 본능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자동기계가 아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충동(식욕, 수면, 성)만 지니고 있다. 충동은 생존에 필수적인 특정 욕구를 포함할 뿐 아니라 욕구 충족에 매우 제약된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 욕구 충족은 가변적이라 이와 함께 충동도 변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구체적, 객관적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지속적이고 생산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다. 인간의 욕구는 상황을 자각하고 있고, 장기화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충동적 삶을 나타내는 욕구 관심의 억제 가능성 및 유예 가능성과 분명 관련되어 있다. 이런 가능성들은 다시 욕구와

억제를 자각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성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는 자각되는 동시에 억제되거나 연기될 수 있어야 한다.

본능의 결핍 때문에 인간은 기본 욕구와 이 욕구를 외적으로 제약하는 것 사이에 세계 안에 자신을 정위하면서 행위하는 모든 체계가 끼어든다. 이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사회적 연관이다. 모든 사회적 연관은 개인의 우선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 개입한다.

인간의 행위 및 지각하고 사고하는 의식은 욕구와 충동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간극'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충동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간극'이다. '충동 방향의 변화'는 인간의 충동 지배 가능성을 열어준다. 고도로 발전된 금욕(자극으로써 욕구를 억제하는 것)에서 인간은 계속 자신의 본능을 퇴화시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능의 결핍/퇴화가 인간됨의 과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와 이성의 도움으로 불완전한 성 본능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 본능을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본능의 통제자이자 의사결정자라는 의미이다. 갤렌은 인간이 본능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불완전한 본능을 훈육과 교육으로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답게 되어 간다고 한다. '인간다움'이란 본능적 욕구에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적절히 제어해야 하는 삶으로 표현된다. 불완전한 인간의 성 본능은 이성과 의지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이유이다. 인간다운 삶은 이성으로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삶이다.

본능에 지배되는 동물의 성욕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을 수 없지만 성적 자유가 있는 인간의 성욕과 성적 활동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인간은 성욕을 표현하는 성 행위에서 의식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 2. 인간 성의 세 가지 의미와 가치

성을 지칭하는 sex, gender, sexuality가 있다. 섹스는 '자른다', '나눈다'의 의미인 'seco'에서 파생된 것으로 나누어진 것, 구별된 것을 뜻한다. 또한 male/female을 구별하는 신체적, 생물학적 성으로, 생식 기관에 의해 남녀 성별을 구별한다는 뜻이다. 섹스는 성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Gender는 60년대 페미니즘 운동에서 처음 사용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성 정체성을 말한다. 남성다움(masculinity)과 여성다움(feminity)은 사회-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력이 성 각본(sexual script)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에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와 압력은 시대나 사회마다 다르다. 사회-문화적, 심리적 성으로서 젠더는 성 정체성과 성 역할-문화와 관련된다.

Sexuality는 성 행위, 성 활동, 성 욕망, 성 관심, 심리, 성적 관행 및 제도와 관습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단어다. 섹슈얼리티는 사랑, 성적 쾌락과 같은 성 욕망과 관능성을 말한다. 섹슈얼리티로서 성은 성욕을 통해 표현되며, 성욕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성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성 활동은 생식에 관여함으로써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열정과 쾌감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행해진다.

성에는 생물학적, 쾌락적, 인격적 가치가 있다. 생물학적 가치는 생식을 통한 유전 다양성을 창조함으로써 종을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생물학적 가치는 성 행위의 결과적 가치다.

성적 쾌락은 남녀 간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강화제로서 애정적 유대에 기여하는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성적 쾌락은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쾌락의 경험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성욕은 타 인격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합일하고자 하는 욕구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향하는 대상은 "사랑"이다. 개별 인격을 넘어 타 인격과 하나 되는 자아확대 및 사랑의 경험에 관계되는 성은 인격적 가치를 갖는다. 이런

성은 사랑과 자아의 확대를 통해 인간다움, 즉 인격이 표현된다. 인간의 성이 동물의 성과 다른 점은 인격적 가치를 갖는 것에 있다. 인간의 성은 인격적 사랑과 관련 있고, 이를 통해 인간은 특별한 존엄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인간다운 성의 핵심이다.

각 성의 가치는 규범(덕과 의무)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그 가치들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양육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행위와 그로 인한 임신은 낙태로 귀결되고, 지나친 쾌락 추구는 고통이나 절망을 낳고, 또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를 제약하고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다. 성의 가치들은 덕을 갖추고 의무를 다하는 바탕 위에서 실현된다.

성의 생물학적 가치는 성 행위의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 규범과 관계되며, 생식 가치는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쾌락 가치에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절제 있는 성이 쾌락 가치를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이 있는 성을 통해 인간다운 성, 즉 성의 인격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사랑은 타 인격의 가치를 긍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시작하여 타 인격을 위한 헌신에서 완성된다. 사랑 있는 성의 실현은 인격 존중의 의무와 자기헌신 및 희생의 덕을 요구한다.

## 3. 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사랑

성에 대한 태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6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성 본능인 리비도; 인격과 행동 패턴의 발전; 사회-문화의 영향; 직접적 환경(가정)과 지역사회; 교육; 정신적 충격을 주는 구체적인 성 경험(성폭력)

성 본능인 리비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성감대라고 부르는 몸(음핵, 음경, 젖가슴)을 갖고 있다. 인격과 행동 패턴의 발전은 배변훈련에서부터 사춘기의 이차성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안에서 경험하는 성의 발달과 함께 일어난다.

성에 대한 태도 형성에 사회-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시대, 나라, 장소마다 다르다. 가족, 친구, 종교인이 성에 대해 지닌 윤리나 가치도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공식적 성교육을 누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성폭력도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사랑은 성 가치관과 윤리관을 포함한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 요인이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주변세계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다. 사랑은 감정이고,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서,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이다. 사랑은 작용하고 작용 받는 것이다.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의 문화가 있다. 문화는 개인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 사회와 문화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을 제한하고, 행동을 규정짓고,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사랑을 배우는 방법은 개인이 성장한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가 될 것이다. 부모는 자신들이 배운 종류의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친다. 부모도 그들의 스승과 문화의 지배를 계속 받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 세계 안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또는 아닌지를 배운다. 아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특수한 한 가지 타입을 배우게 된다. 누구나 사랑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노력 없이는 결코 이를 깨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을 책이나 수업이 아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특별한 경이와 기쁨 중에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성은 인간이 성적으로 무엇을 원하고(성 욕망), 어떻게 행동하는지(성 행동)에 관한 것으로, 어떤 인간인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윤리적 사안과 관련된 것이다. 또 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원하는 사랑과 관련되며, 이를 통해 온전히 소유되고 성취될 수 있다.

##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사랑"에 관한 글:

-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 연구하지 않는 것을 알 수는 없다. 사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사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 믿음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 의심할 수는 없다. 사랑을 믿기 위해서는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
- 승복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사랑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살 수는 없다. 사랑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영원히 성장해야 한다.

## 평가(세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리커트 문항)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인간의 성 본능이 동물의 성 본능과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2. 인간의 성의 세 가지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 | | | |
| 3. 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권응호 역(1989), “인간이기 때문에”, 학일출판사.
- 류지한(2000), “성 윤리”, 도서출판 율력.
- 이동원·김미숙 역(1987), “성의 사회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은선 역(2020),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이을상 역(2015), “인간, 그 본성과 세계에서의 위치”, 지식을만드는지식.

02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 목표

발달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 세부목표

1. 발달장애인의 세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인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자폐성장애인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배경정보

2회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특성에 관련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발달은 한 사람의 일생동안 나타나는 것이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발달은 시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나이에 따라 보편적인 발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발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는 어떤 특정한 병이나 장애를 지칭한다기보다 발달기 동안에 기대되는 발달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를 의료적 진단에 따라 정의되어 규정되거나, 반대로 매우 넓은 의미로 규정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경우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가 의료적 명명(판단)에 따른 유형화에 아직까지 고착되어있는 현실이다. 반면, 세계적인 흐름은 특별한 필요욕구(지원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발달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발달장애인의 개인 내·외적인 특성에 따라 지식의 수준과 습득, 태도의 다양함이 있기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두 개개인이 다르듯 우리가 만나는 발달

장애인들도 많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떠올릴 때 부정적인 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없거나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적절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장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회기에서 발달장애라는 큰 틀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각 특성을 이해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성인권교육의 기초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교수범위**

1.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세부 특성
   : 인지, 사회성 및 적응행동, 주의집중, 언어·의사소통
2. 자폐성장애인의 정의와 세부 특성
   : 인지, 사회성 및 적응행동, 감각, 언어·의사소통, 행동
3. 발달장애인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접근 방법

**교수내용**

## 1.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국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발달장애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달기 중에 드러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이나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운동능력 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상태를 총칭하고, 보통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지원 방법, 가족관계 등 자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발달장애인을 보는 경향이다.

## 2. 지적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 1) 지적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즉 지적장애는 지적 능력의 제한이 드러나 기억, 주의집중, 학습이나 추리, 문제해결 등에 어려움을 보이며 적응행동(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의 제한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지적장애인으로 진단하며 지능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적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 2) 지적장애인의 세부특성

지적장애인은 환경 등에 의해 다양한 개인 특성이 나타나므로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되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인지 특성

❶ 지적장애인은 주변 정보 획득하여 반응하기, 문제해결 관련 요인 선정하기, 추상적인 개념 알기 등 인지 기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❷ 모방학습, 우연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환경 및 상황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❸ 배운 것을 과도하게 일반화시키거나 반대로 배운 내용을 다른 곳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일반화 부족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사회성 및 적응행동 특성

❶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지만 빈약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로 친구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❷ 얼굴 표정, 말투 등의 사회적 단서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❸ 놀이나 관심사가 또래보다 어리고, 복잡한 규칙이나 방법이 필요한 놀이 참여를 어려워하여 혼자 놀거나 또래 관계 형성을 어려워한다.

❹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❺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쉽게 동화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❻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두려움을 보이며 이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자신감 상실로 타인의 지시와 지도에 의존하게 만들기도 한다.

(3) 주의집중 특성

❶ 선택적 주의집중 및 주의지속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❷ 자극에 초점을 맞춰 집중을 보이거나 좋아하는 것에 길게 주의집중 할 수도 있지만 장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❸ 주변의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산만해지고 빠르게 다른 과제나 활동으로 관심이 이동하기도 한다.

(4) 언어·의사소통 특성

❶ 언어 습득 속도가 느린 편이고 사용하는 어휘가 다양하지 않아 단순한 구문으로 말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경향이 있다.

❷ 언어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른 행동을 하거나 마치 지시를 듣지 못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❸ 언어 의사표현이 서툴러 말 보다 행동을 먼저 선행하기도 한다.

# 3. 자폐성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 1) 자폐성장애인의 정의

최근 개정된 DSM-5(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반적 발달장애의 하위유형(자폐성장애, 아스퍼거 장애, 비전형 자폐증)을 포함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를 모두 하나의 진단명으로 통합하였다(이하 '자폐성 장애'라 한다).

DSM-5의 자폐성장애 진단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진단기준 | |
|---|---|
| 사회적 의사소통 및<br>상호작용 지속적인 결함 | 제한적이고 반복적 행동(상동행동), 흥미, 활동 2가지 이상 |
| 특징 | |
| •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 결함<br>• 사회적 의사소통 부족<br>• 관계 형성과 유지, 이해의 결함 | •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동작, 반복적 사물 사용, 반복적 말하기<br>•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과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의례적인 구어나 비구어적 행동 양식고수<br>• 비정상적인 강도나 초점으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br>• 감각정보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 |

## 2) 자폐성장애인의 특성

자폐성장애는 다양한 장애특성으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도 하는데 자폐성장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인지 특성

❶ 자폐성장애의 75% 내외는 낮은 지적능력을 보여준다.

❷ 인지발달의 지체로 적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 주의집중, 일반화와 전이와 같은 인지기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❸ 일부의 경우 세세히 기억하는 등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상황에 부적합하거나 무의미하게 사용되어 실제적인 학습이나 생활에 연관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❹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학습의 편차가 크며 선호하는 사물이나 과제는 빠르게 학습하기도 한다.
❺ 추상적이거나 상징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❻ 자신만의 생활양식을 패턴화, 의식화하는 경향을 보여 패턴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좌절감을 겪기도 한다.
❼ 외부환경에서 입력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 사회성 및 적응행동 특성
❶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상호반응 또는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
❷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❸ 신체적인 접촉을 좋아하지 않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
❹ 주위 사물 또는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❺ 경험했던 일도 장소가 바뀌거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면 처음 하는 것처럼 생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❻ 자제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주의집중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3) 감각 특성
❶ 감각자극에 대한 민감반응, 둔감반응, 자극추구 행동의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❷ 시각적 사고를 선호하고 시각적 정보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❸ 감각추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때리는 행동(자해행동)을 하기도 한다.

(4) 언어/의사소통 특성

❶ 말을 할 수 있어도 무의미하게 또는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소통하여 자신의 의도나 요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❷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해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기보다 자신의 관심사에만 한정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❸ 남이 하는 말을 메아리처럼 그대로 따라 말하는 반향어를 보이기도 한다.

❹ 몸짓, 손짓,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

❺ 텔레비전 광고, 대사 등은 완벽하게 외우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 못하는 경향이 있다.

❻ 억양이 단조롭거나 음도가 높은 특유의 음성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5) 행동 특성

❶ 환경이나 일상의 변화를 불안해하여 같은 방식의 행동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❷ 일상적인 방식이나 패턴이 무너지거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초조함을 보이거나 심하면 소리 지르기, 떼쓰기 등의 행동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❸ 반복적으로 몸 전체 흔들기, 빙글빙글 몸 돌리기, 손가락 계속 쳐다보기, 손 털기, 의미 없이 계속 책장 넘기기, 까치걸음으로 걷기 등의 반복되는 상동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❹ 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과잉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❺ 얼굴 일부 씰룩거리기, 눈 깜박거리기, 딸꾹질하기 등의 틱 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자폐성장애인은 동일성 고집, 자기자극, 반복적 신체 움직임, 감각자극에 대한 특이 반응, 공격적 행동, 자해행동 등의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회적 수용을 방해하는 행동, 즉 도전적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행동은 의사소통, 자조,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전달하려거나 각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4. 발달장애인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접근방법

가정에서도 발달장애자녀의 생활연령을 존중하여,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생활 속 성교육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장애특성을 반영한 일반적 교육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❶ 대화를 나눌 때 구체적이고 쉬운 표현(일상적 단어) 사용하기
❷ 비유를 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대화하기
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면 질문하여 다시 확인하기
❹ 이해하지 못하면 육하원칙을 활용하여 천천히 이야기하거나 반복하여 전달하기
❺ 그림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 정보 제공하기
❻ 일반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설명하기
❼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계별로 차례로 인식시키기
❽ 상황 교육 시 칭찬과 격려로 지도하며, 비난의 태도 금지하기
❾ 칭찬거리 찾아 강화의 기회 제공하기
❿ 긍정행동(어려운행동이 아닌 모든 행동)을 격려하여 어려운 행동 감소시키기
⓫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기
⓬ 감각자극에 대한 특이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좋아하는 자극을 제공하거나 싫어하는 자극을 배제하여 교육 효과 높이기
⓭ 주의와 지지를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하되 침착한 태도로 구체적 사실에 대해 말하기

## 평 가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지적장애인의 정의와 세부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다. | | | | | |
| 2. 자폐성장애인의 정의와 세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3. 발달장애인 특성에 따른 교육적 접근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방명애 외 3인(2018), “자폐성 장애학생교육”, 학지사
- 박승희 회 5인(2021), “지적장애인 교육”, 교육과학사
- 송준만(2022), “지적장애학생 교육”, 학지사
- 이성용(202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한 증거기반 실제”, 에듀컨텐츠휴피아
- 여성가족부(2016).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진한엠앤비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교재(2021),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경도지적장애 학생의 어휘 의미추론 연구 우혜진 대구대 석사논문(2021.2)

03

#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 인권

## 목표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 인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 세부 목표

1. 발달장애인의 발달단계별 성적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의 사춘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배경 정보

생애주기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이 비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본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성장하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당연히 사춘기를 겪는다.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의 특성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 인권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성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심리적 구성물로서 자기결정은 사회-생태적 틀 안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들과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교수 범위

1. 발달장애인의 발달단계별 성적 발달 특성
2. 발달장애인의 사춘기 특성
3.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 특성

**교수 내용**

## 1. 발달장애인의 발달단계별 성적 발달 특성

성별은 수정될 때 결정되며, 태아가 성장하면서 완성된다. 부모로부터 각각 23개 염색체를 수정란에 받아 총46개 염색체가 된다. 난자(X)에 정자의 (X) 혹은 (Y)가 결합되어 유전학적 정상 여자는 XX성염색체를, 남자는 XY성염색체를 갖는다. XY 결합은 XX결합보다 연결체 생존력이 약해 남자 태아가 여자 태아보다 취약할 확률이 높다. 태아의 성염색체는 난소 또는 고환을 발달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Y성염색체가 있으면 약6주 후 태아 생식선이 남자 성기로, 없으면 약10주 내에 생식선이 난소로 발달된다. 태아 생식선의 발달과 함께 생물학적 남성 혹은 여성으로의 성 분화는 성호르몬 분비와 함수관계로 진행된다. 남자는 고환에서 안드로겐이 분비되어(약 3개월 내) 남성 성기가 안팎으로 생성되는 동시에 분화를 촉진하게 된다. 안드로겐 호르몬이 없으면 여성 성기가 발달하게 된다.

성염색체의 비정상은 생물학적으로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성 특질을 나타내는데, 터너증후군과 클라인펠터증후군이 그렇다. 터너증후군은 X성염색체 한개만 갖는다. 외모는 여자이나 유전학상 불완전한 여성이다. 작은 키와 손톱과 발, 손가락 기형, 심장질환, 임신능력이 없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여분의 X성염색체를 지니며(XXY, XXXY) 유전학상 남자와 여자 성염색체가 다 있어 모호하다. 외형으로는 남자이나 젖가슴 융기, 작은 성기, 혼돈된 성정체감을 갖는다. 지능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 지능장애가 있다. 자웅동체는 태아가 생식기관 분화시 여성이나 남성으로 완전치 못한 생식기관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신생아는 성해부학적 구조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생물학적 성 구분이 불분명하다.

영유아기에 엄마와의 관계는 향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 만짐과 상호응시는 보호받는 느낌과 결속감을 갖게 하며, 엄마와 긍정적 상호작용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성 및 성적 발달을 돕는다. 빈약한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하는 자폐아는 사람을

붙잡거나 껴안는 게 적다. 병약한 아이는 잦은 입원으로 인한 부모와의 분리로 혼란스러운 감정 갖는다.

걸음마기의 비장애 아기는 성정체성, 성역할, 신체부위명,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소년과 소녀의 차이와 사회적 기대 및 규칙, 제한을 배운다. 반면, 발달장애아는 사회적 기술, 성 관련 이슈, 신체부위명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 소년과 소녀의 차이, 사회적 기대와 규칙, 제한을 모른다. 초기아동기의 발달장애아는 비장애아처럼 주변인, 특히 가족간 애정 표현을 보면서 사회적 발달과 성적 발달을 한다. 가족 간 상호작용은 장애아가 친밀하고 개인적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준다.

학령전기에는 자신이나 다른 아이의 몸에 호기심 갖고 사생활 추구하는 게 정상이다. 발달장애아는 또래와 분리되고 적절한 성인 모델 없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남녀 몸의 이름 모르고, 사생활이 없어 자기 몸을 탐색하지 못한다. 그 결과 공과 사의 개념을 배우지 못한다.

저학령기의 아이들은 또래집단을 찾고 상호작용하며 성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배운다. 발달장애아는 또래집단이 없고, 스스로 다니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부모는 또래와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발달장애아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존감을 키우게 하고, 가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주고, 공과 사, 사춘기 변화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사춘기에 발달장애인도 이차성징의 발현, 성충동 및 감정변화의 급증, 불안감 증폭, 장애를 부정 혹은 거부, 빈약하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발달시킨다. 이때, 발달장애인에게 몸에 대해, 초경과 몽정에 대해 알려줘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해야 한다. 이들은 자조능력의 부족과 과잉보호로 인해 의존적이고 학습된 무기력을 갖는다. 자기인식, 우정, 친밀감, 사회규칙을 배울 수 있는 사회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적 발달이란 곧 사회-성적 발달이다.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은 성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다. 개인의 사회적 발달은 성적 발달과 함께, 총체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은 사회적 관계인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 2. 발달장애인의 사춘기 특성

발달장애인은 언어능력,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활동의 제한성으로 인해 적절한 성 지식, 성 태도, 성 행동을 배우거나 적절한 사회-성교육을 효과적으로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성 욕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함으로써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다. 자신의 성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부적절한 죄책감과 느낌을 발달시킨다. 성 관련 단서, 동기, 사회관습과 규범을 알지 못해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

자폐인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에 관심 없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필요를 못 느낀다. 자폐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이유는 성적 긴장 방출, 활동 부족, 자기자극 추구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들도 이성에게 관심 있지만 적절한 접근방법을 모르며, 상대의 성적 관심과 제안에 있는 미묘한 암시와 단서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 타인에 대한 관심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또래관계가 없고 그 결과 또래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인식과 사회적 기술을 못 배운다. 자폐인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성폭력을 당했어도 사랑으로 알거나 비밀을 지키려고 보고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신체-성적발달에서, 발달장애인은 정상 발달순서를 따르고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초경, 몽정, 변성, 체모, 골격변화와 같은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연령이 비장애 또래와 다르지 않다. 장애가 중할수록 사춘기 시작이 지체된다. 지능이 낮을수록 성적 발달은 지체되고 정상 발달패턴을 충분히 따르지 못하며, 느리고 고르지 않은 성적 발달을 한다. 자신의 신체변화를 알지 못해 당황해 하고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심리-성적발달에서, 발달장애아는 보호적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적 위험을 배울 기회가 적고 의존적으로 살다 보니 심리적 성장이 늦다. 또래나 다른 성인들과 관계 맺거나 파트너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음으로써 사회적 지식 습득이 지체된다. 그들의 성적 특성은 돌보는 사람에 의해 거부되거나 부정되며, 성적 활동은 늘 감독받고, 성적 표현은 제지당한다.

신체 발달이 정상이면 성적 발달은 인지 발달보다 생물학적 발달을 따른다. 발달장애인의 성 욕구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적 느낌과 욕구를 경험하나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르고, 파트너가 없어 잘못된 방향에서 해결하려 한다. 공적장소에서 성적 활동, 자위행위, 신체 접촉 등의 부적절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몰라서, 혹은 성적 표현의 기회나 성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성에게 관심을 갖지만 또래경험의 부족과 적절한 사회-성교육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들의 성적 표현은 종종 억압과 제지를 당한다.

## 3.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 특성

성인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발달장애인의 성인권도 용인, 보호,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도 성적 표현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대인관계 및 성과 관련된 권리는:

-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애정과 우정, 성관계를 갖고 또 자신이 선택한 관계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권리
- 그런 관계 안에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문화, 종교, 도덕가치, 사회적 책임에 맞게 성적 표현을 하고 성교육 받을 권리
- 생식, 결혼, 가족, 금욕, 안전한 성생활, 성 지향, 성교육에 관한 교육, 공지된 의사결정을 돕는 개별화교육 권리
- 성희롱과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기결정에 존재하는 몇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을 하는 사람이 될 능력이 있다.
-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자기결정은 다차원적 구성물이다.
- 자기결정 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연습은 다양하고, 많고, 개별적이어야 한다.
- 자기결정 기술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핵심적인 사회적-개인적 맥락에서 연습되어야 한다.

자기결정 능력은 다음 내용을 아는 것에 근거한다:
(1) 선 또는 악을 구성하는 것을 아는 것,
(2)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욕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인지 아는 것
(3) 욕구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아는 것
(4) 여러 선택안 중 하나를 선택할 현실적 가능성을 아는 것
(5) 다른 것 대신 이것을 선택한 결과를 아는 것
(6) 안다는 것에 행동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성 욕망은 알지만 그 저변의 동기는 잘 모른다. 또 자기결정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알아야 하며, 자기결정 능력은 각 행동에 따라, 각자의 실생활에 따라 다르기에 계속 변한다. 삶의 각 단계가 자기신뢰, 성실, 용기, 확신을 증대시킨다면 바람직한 양자택일 중에서 선택하는 능력도 증대된다. 선택하는 자유가 작다면 다른 사람과 유리한 환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에서도 이런 요인들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역시 자신의 장애와 상관없이 성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 자신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배울 권리가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알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성을 어떻게,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고 또 책임질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성인권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주 양육자와 전문가가 해야 하는 4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성교육과 성상담 제공, ② 사람중심방법을 통한 개별지원, ③ 자기인식과 자기결정을 키워주는 역량강화, ④ 건강한 성적 존재로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및 기회 제공. 이런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성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배우게 되면, 그들 스스로 선택한 낭만적 관계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평가(세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리커트 문항)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발달장애인의 발달단계별 성적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2. 발달장애인의 사춘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3.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채규만(2006), "성행동 심리학", 학지사.
- 황문수 역(2002),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 Bazley, L. D. & Zendell, L. A. (2005), "Sexuality across the lifespa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 instructional guide for parents/caregiver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lorida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 Inc.
- Richards, D., Miodrag, N., & Watson, S. L. (2006), 'Sexuality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Obstacles healthy sexuality through the lifespan', "Developmental Disability Bulletin", 1(2): 137-155.
- Richards, D. Watson, S. L., Monger S., & Rogers, C.(2011), 'The Right to sexuality & relationships', In D. Griffiths, F. Owen & S. Watson(Eds.), "The human rights agenda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pp.143-178), St. Catharines, On: Brock University Press.
- Walker, H. M., Calkins, C., Wehmeyer, M., Walker, Bacon, A., Geringer, W., Palmer, S., Jesien, G., Nygren, M., Afbery, B., & Johnson, D.(2011), 'A social-ecological approach to promote self-determination', "Exceptionality", 19: 19-30.

04

# 성적 발달의 기초로서 자기인식과 자존감

## 목표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세부 목표

1. 성적 발달에서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자기인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자존감의 구성요소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배경 정보

성적 발달은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며, 발달장애인의 성 행동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그 점이 발달장애인 성교육에서 성 지식 제공만으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긍정적 자기인식과 자존감은 그들의 성적 발달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인식과 자존감은 개인 스스로 형성하고 개발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와 가족, 주변인들의 피드백은 발달장애인의 자기인식과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에, 성교육에서 부모와 가족, 주변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또 먼저 그들에게 교육 제공이 필요한 이유이다.

## 교수 범위

1. 성적 발달에서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관계
2. 자기인식의 형성 과정
3. 자존감의 구성요소와 향상시키는 방법

**교수 내용**

## 1. 성적 발달에서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관계

자신에 대한 인식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아기로 여기면 아기 행동을 하게 되고, 성인으로 여기면 성인 행동을 한다.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유능하다고 믿으면 행동한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자신을 도움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타인에게 도움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성장한다는 것은 성적 발달과 같은 말이다. 성장하는 동안 인지 발달과 self의 발현이 함께 일어난다. 인지 발달 수준이 낮고 발달 속도가 느린 발달장애인은 자기 발현 수준이 낮고 천천히 나타난다. self는 성장하는 동안 학습하고, 소유하게 되고, 만들어진다. 주변인의 신념과 태도를 내재화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self는 주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에 뿌리를 둔다. 주변인과 상호작용한 결과 새로운 신념을 발달시키고 받아들인 정보를 통합시켜서 self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부모나 주변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피드백/반응을 받으며 살아왔고 또 살아간다. 발달장애인은 집, 학교, 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자기 나이나 성별에 맞는 요구나 기대를 받아왔을까? 그런 기대나 요구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까?

발달장애인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성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자기인식은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자기인식은 자기 내면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도 파악하는 초인지 능력을 요구한다. 자기인식은 인지능력과 관련 있기에 인지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자기인식이 정신연령이 비슷한 아이들과 유사한 이유다. 어떤 발달장애인은 사람들이 장애를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

자기인식의 한 측면인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자존감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 미친다. 긍정적 자기인식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 부정적 자기인식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에 자만하고 실패시 좌절하기 쉽다. 성폭력과 관련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옹호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나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옹호를 잘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나 성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 2. 자기인식의 형성 과정

자기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자기 모습이다. 자기인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자신의 행동을 지시해 주는 축적된 힘이다. 또한 개인의 행동, 능력, 신체,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집합체이다. 즉, 자기 인식이란 자신에 대해 지닌 인식과 신념의 조직화되고 일관된 총체로 개인의 운명이 되기 쉽다.

자기인식의 형성·발달 과정을 보면, 영유아기는 self에 대한 개념이 없고 2살쯤 self가 나타난다. 학령전~초등저학년에는 self의 구체적·행동적 측면에 초점 맞춘다. “나는 얼굴이 길다(신체 특성),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행동 기술”). 초등고학년~고등저학년은 self의 사회적/기질적 측면에 초점 맞춘다.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와준다.” 고등고학년 이상은 self의 추상적 측면과 심리적 내면에 초점 맞춘다. “나는 자신에게 참된 존재이고 싶다.” 성장함에 따라 구체적 self를 갖는 것에서 시작하여 추상성이 늘어가고 결국 추상적 self를 인식한다.

자기인식은 발달 단계마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계속 변해간다. 자기인식은 환경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해석이 깊어감에 따라 발달해 간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에 대한 많은 인식을 갖게 되며, 자기인식은 상황과 함께 변하는 맥락적 성격을 띤다. 자기인식에 아동기 경험과 중요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인식은 다차원적이고, 내적으로 일관되며,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인식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고 예측해 주는 가상적 구조다. 자기인식은 개인의 행동방식에 영향 미치고, 행동은 다시 자기인식에 영향 미친다. 자기인식(자신을 만드는 것들)에는 성별, 학력, 재능 및 관심, 민족/인종, 종교, 섹슈얼리티 등이 포함된다.

자기인식에 있는 3가지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자기인식은 학습된다. 이는 자기인식이 본능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뜻이다. 개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살아가면서 여러 다른 순간에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식한다. 자기인식과 일치하지 않은 경험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분법적 추론이나 과잉일반화 같은 잘못된 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하게 만든다.
- 자기인식은 조직화된다. 자기인식은 일관성, 안정성을 추구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인식에 특별한 신념이 중심에 있을수록 인식을 바꾸는데 더 저항한다. 자기인식에는 행위자로서의 "나(I)"와 대상으로서의 "수많은 나(me)"가 있다. 자신이 인식한 성공과 실패는 자기인식에 영향 미친다.
- 자기인식은 계속 변해가는 역동적인 것이다. 세상과 사물은 자기인식과의 관계에서 인식된다. 개인은 자기인식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자기인식은 공격받게 되면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하면서 성장하지 못한다. 자기인식이 약한 사람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공격적이 된다. 자기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 부모, 또래, 교사가 자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이 자기인식에 영향 미친다. 자기 의견과 능력을

사람들과 비교·검사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기 위해 적개심과 반대 의견을 일으킨다. 개인이 비교집단을 중요하게 여기면 자신을 그 집단과 일치시키려고 한다. 비교집단과 자신이 많이 다르다고 여기면 비교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과 비교하면(평행비교) 정확한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상향비교), 배우기는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하향비교), 배우는 것 없으나 자존감은 커진다.

자기인식의 발달에는 자신이 이룬 영역에서의 성취를 다른 영역에서의 성취와 비교하는 개인내 비교와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가 있다.

자기인식에는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포함된다. 개인적 정체성은 사람들과 구별 짓는 고유한 존재로 만드는 기질과 여러 특성을 지닌 자기 자신이다.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집단(스포츠팀, 종교단체, 정당, 직장, 사회계층, 동아리 등)에서 자신이 가진 멤버십(소속감)에 근거한 자기 자신이다.

## 3. 자존감 구성요소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존감은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다. 자존감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모든 경험과 모든 대인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혹은 안 좋게 보게 하는데 영향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을 표현할 용기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준다고 생각하고, 긍정적 기회를 끌어들이는 사람으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태도를 지닌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거라 여기며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기 힘들어한다.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만큼 혹은

다른 사람만큼 좋게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낮은 자존감은 조롱받을 거라고 여겨 창의성을 보여주기 두려워한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혼자 지내며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한다. 걱정이 많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태도를 지닌다.

자존감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기평가로부터 생겨난다. 가치 있는 영역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신념과 강력하게 관련 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능력을 발달시키고, 주변 가치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
- 자신의 실수, 비난, 단점을 다루고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
- 사람이 아니라 과업에 초점을 맞춘다.
- 성공과 노력에 대해 칭찬받을 때 자존감이 커진다.
- 주변인을 수용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은 부모가 키워줘야 한다. 효과적인 양육을 하는 것인데,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기신뢰를 키워준다. 사람은 사회 안에서 자란다. 발달장애인의 느리게 펼쳐지는 개별화와 자율성은 부모 및 가족과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 생각과 감정,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질 때 자존감이 커진다. 명확히 규정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라고, 제시되는 한계는 공정하고 억압적이지 않으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한계) 없는 자유는 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확실한 근거(한계)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또 한계를 지켰을 때, 그에 따르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신감을 얻는다.

발달장애인은 존중받을 때, 감정을 받아줄 때 자존감이 자란다. 발달장애인의 개성을 인정해 주고,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을 보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줄 때(가시성을 느끼게 해 주는 것: 수학이 어려운가

보구나. 기분이 별로인 것 같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싶니?) 자존감이 커진다. 부모 스스로 자존감이 높을 때 발달장애인은 살아있는 사례(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본다.

부모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갖는 기대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반영된다. 발달장애인을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낀다.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존감을 갖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다.

## 평가(세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리커트 문항)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성적 발달에서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 | | | |
| 2. 자기인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3. 자존감의 구성요소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오제은 역(2007), “사람중심의 상담”, 학지사.
- 정진옥(2011), “보호작업장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자기개념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Da Silva, D.(2007), ‘Self-concept: What is It, and Why is It Important?’, “JALT2006 Conference Proceeding”, Tokyo: JALT.
- Humphrey, N.(2004),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Developmental Dyslexia: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http://www.onlinelibrary.wiley.com/athens
- Swang-Wilson, A.(2008), ‘Caregiver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s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exuality and Disability”, 26(2): 75-81.

05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 목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 세부 목표

1.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알 수 있다.
2. 대인관계에 따라 친밀감의 표현과 경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친밀감으로 위장한 그루밍 성폭력 피해와 성범죄를 알 수 있다.

## 배경 정보

5회기는 발달장애인이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신의 감정, 생각, 의사를 표현하는 기능과 타인의 감정을 읽는 기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호관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고립감, 과보호 등을 경험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또한, 생애 전반에 걸쳐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주 부정적으로 거절당하는 경험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임할 때 친밀감의 표현과 경계를 지키는 것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반대로 타인에게 친밀감으로 다가가려다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적인 인간관계와 개인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사회적 거리에 따른 적절한 표현의 차이를 알고, 대상에 따른 신뢰감 형성의 정도와 그에 맞는 안전한 경계를 지킴으로써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기술을 체득하도록 한다.

## 교수 범위

1. 사회적 지능과 사회적 기술
2.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과 바운더리
3. 대인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와 성범죄

## 교수 내용

### 1. 사회적 지능과 사회적 기술

자기, 타인, 사회적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자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여 예측하는 방식을 사회인지라고 한다(정하나 외, 2021). 이러한 사회인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정하나 외, 2021),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므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해석하여 자신의 감정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역시 어려움을 느껴 타인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나와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훈련은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 표현을 교수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욱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느끼는 상황별 감정의 변화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발달장애인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며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사회적 기술은 학령기뿐만 아니라 장애 성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안혜신 외, 2019), 발달장애인들은 누군가를 칭찬 혹은 공감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거절하거나,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기술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친사회적 기술들을 충분히 배우고 이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수시로 실천하며 몸으로 체득할 기회가 이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 2.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과 바운더리

### 1)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가족과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이라도 가족 간에 지켜야 하는 경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지 함께 찾아보고 인식시키도록 한다.

### 2) 발달장애인과 또래 간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본다. 발달장애인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부모님과 치료실 등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사회성과 정서 발달의 어려움으로 어떤 방식으로 친구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정보의 부재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또래들에게 부정적인 거절을 거듭 당하게 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또래와의 관계에서 거부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상황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사 표현 기술을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개선

될 수 있다.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표현할 때 적절한 스킨십의 범위를 가르쳐주고, 사회에서 용인되는 적절한 거절 표현을 지도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 안에서 또래들과의 교류 가운데, 자신의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요구, 동의, 거절에 따른 언어·비언어적인 의사 표현을 교육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3) 발달장애인과 주변인 간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본다. 손다이크(Thorndike)는 사회적 지능을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 사회적 단서를 다루는 능력,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능의 제한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나타나기에 주변인들과의 친밀감 표현에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경험으로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이웃이나 아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보고 만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귀엽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보고 만지는 경우 보호자가 당황하고 오해하여 성범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발달장애인과 낭만적인 관계(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낭만적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인기가 되어 누군가와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발달장애인들은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자기결정에 따른 감정표현이 아닌 파트너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지기능과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성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임신, 성매개 감염병, 건강 악화에 대한 것들로, 단 한 번의 성행동만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면 자신의 몸을 귀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위험한 성행동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제를 하게 될 때, 건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안전한 데이트 장소나 스킨십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스킨십을 강요할 때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음을 교육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교제를 중단하고 싶어 할 때는 그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 3. 대인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와 성범죄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성적 문제의 범위는 다양하다. 발달장애인들도 성적 욕구가 존재하며, 따라서 성욕 처리 및 자위, 성관계와 피임/임신, 성추행/성폭행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김강률 외, 2020).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중 대부분의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렇게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제한된 인지기능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보다 그들의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었어도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주로 유인으로 발생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은 성폭력 상황과 정당한 친밀감의 표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울 때, 주변에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친밀감을 위장한 접근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체적 접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상대와의 성행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거짓된 말을 분별하기 어렵고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몇 번 만난 사이를 친밀한 관계로 인지한다. 이런 경우 보호자가 그 관계를 분리하려고 할 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억지로 못 만나게 한다고 인지하면서 가출을 하거나 부모를 원망하며 또 다른 상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은 성인기가

되기까지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할 때 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거절하면 마치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성폭력 피해 조사 시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발달장애인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된 내용은 공적 장소에서 생식기 만지기, 성적 자극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몸에 문지르기, 부적절하게 응시하기 등 매우 다양하다. 발달장애가 있는 행위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 행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의 인과와 함께 당사자의 역사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당사자의 신체적/정서적 경계가 침해된 경험은 없는지, 침해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평소 충동조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발달장애의 정도는 어떤지, 재범의 위험성은 어떠한지, 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충동성은 어느 정도인지, 병발된 다른 정신의학적 문제는 없는지, 사회적 기술은 어떤지, 치료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김강률 외, 2020).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성에 대한 지식, 사회적 기술, 타인 조망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요소도 있고, 미디어의 영향으로 부적절한 성적 환상 등으로 인해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가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Hanson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범죄자들 중 심리치료를 받은 그룹의 재범률(12.3%)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의 재범률(16.8%)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의 지적 기능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과 인지행동치료, 보호자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존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존중의 의미를 망각하기도 한다.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이것이 존중의 사전적 의미임을 되새기며 자신과 타인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인권은 나와 상대방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존중을 실현하는 것이다.

## 평 가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감정표현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 2.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에 따라 친밀감의 표현과 경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 | | | |
| 3. 발달장애인은 친밀감을 위장한 그루밍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 | | |
| 4.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가해의 이유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 | | | |
| 5.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안혜신·이숙향(2019).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기술 중재의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지적장애연구, 21(3), 155-182.
- 정하나·유선미·김지연·임행정·정혜경·허성희(2021).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사회성. 이담북스.
- 김강률·김인향·안동현(2020), 발달장애가 동반된 성범죄자의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한양대학교 행동발달증진센터
- Lindsay WR, Olley S, Baillie N, Smith AH. Treatment of adolescent sex offend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ent Retard 1999;37:201-211.
- Lambrick F, Glaser W. Sex offender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Sex Abuse 2004;16:381-392
- Hanson RK, Gordon A, Harris AJ, Marques JK, Murphy W, Quinsey VL, et al. First report of the collaborative outcome data project on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Sex Abuse 2002;14:169-194.

06

#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 목표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가 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한다.

## 세부 목표

1. 현대 사회의 성문화가 반영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2. 디지털 매체는 성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디지털 매체가 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 배경 정보

6회기는 현대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성은 디지털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매체의 미디어 콘텐츠는 다양한 성 문화가 다양한 시각에 의해 자유롭게 표현되고, 전달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소설, 그림, 사진, 비디오, 음악을 막론하고, 이미지와 영상 컨텐츠 상으로 24시간, 어디서나, 클릭 한 번만으로도 성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는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이 옳은 정보인지 그릇된 정보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삶에서도 역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성 문화와 메시지들을 적절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인지적 기능의 제한과 타인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이 동반되어, 성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부정확한 성 정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성적 표현을 방해한다. 특히, 디지털 매체에서 건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음란물은 분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이 정확한 성 정보를 얻고, 디지털 매체의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관련되어 디지털 도구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려 주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교수 범위

1. 현대 사회의 성문화
2.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3. 발달장애인의 취약성

### 교수 내용

## 1. 현대 사회의 성문화

성은 문화, 예술, 문학, 정치, 법, 철학, 도덕, 윤리, 미디어 등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의 성행동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현대 사회의 성문화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의견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쾌락'을 느끼는 능력으로 자식 생산 이외의 목적, 즉 순수한

쾌락을 위해 성행위를 할 수 있으며, 발달된 지능을 이용하여 쾌락을 배가하는 갖가지 방안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성적인 욕망과 욕구는 특히, 현대 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개인의 성적 특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디지털 매체와 더불어 자유로운 성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성적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쾌락과 물질로만 대체하려는 성적 대상화 관점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동의를 상대방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와 다른 존재로 이해하고, 서로 간의 관심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성문화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에 대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진 만큼, 사회적으로 합의된 건전한 기준이 필요하며, 성행동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개인의 윤리적인 책임과 절제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 2.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 1) 디지털 매체의 특징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그것이 바른 정보이든지, 잘못된 정보이든지 간에 사회에서 인정되고 통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사회 심리학 용어로 '노출 효과(Exposure Effect)'라고 한다. 처음에는 특정 대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싫었던 것도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면 그 대상에 대해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어떠한 정보를 얻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디지털 매체를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가 잘못된 것이거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일 경우, 그것을 습득하고 모방하게 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정보로의 손쉬운 접근성은 그에 못지않게 무분별한 정보의 유통으로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게 만든다. 이것이 대중화되면 건강하지 못한 성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발달장애인 역시 미디어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접근하기가 쉬우므로 잘못된 성 정보로 인한 성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

### 2) 잘못된 성 정보를 얻는 창구, 음란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 정보를 얻는 창구는 주로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건전한 성 의식을 무너뜨리는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음란물 시청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음란물 중독도 늘어나고 있다.

음란물이란 야동(야한 동영상, 포르노), 야설(야한 소설), 야사(야한 사진/그림/만화), 야게임(야한 게임) 등 노출이 심하고 건전하지 못하며, 노골적인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및 불쾌감을 갖게 하는 그림이나 영상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음란물은 성범죄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빅터 클라인 박사(미국 유타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약 300명의 성 중독자, 비행 청소년, 성적 학대의 피해자들을 치료하면서 음란물 소비는 강박과 범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음란물 중독의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빅터 클라인 〈음란물 중독의 4단계〉**

- 1단계 호기심 단계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에서 출발하게 된다. 음란물의 이미지나 영상이 자꾸 떠올라 또 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호기심과 재미로 스스로

음란물을 계속 찾고, 보게 되는 것이다.

- 2단계 자극적 추구 단계
  음란물을 자주 볼수록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된다. 호기심으로 여겨졌던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기존에 시청했었던 음란물의 자극으로는 더 이상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의 쾌감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 쾌락을 느끼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되는 것이다.
- 3단계 일반적 인식 단계
  자극적인 음란물을 추구하다가 보면, 처음에 느껴졌었던 충격적이었거나, 혐오스럽거나 부도덕하다고 인지되던 것들도 차츰 무감각해지며, 익숙해지는 단계가 된다. 즉,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음란물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로, 음란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 4단계 실제 실행 단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음란물을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성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모방하여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실제 현실에서 실행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음란물 이용이 성폭력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음란물 중독으로 인해 실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음란물을 보고 모방한 범죄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중독은 그 마지막 종착지가 성범죄라는 것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발기부전과 조루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뇌에서 계산이나 기억 등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이 쪼그라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다.

발달장애인들 역시 자극적인 음란물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음란물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성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성범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3. 발달장애인의 취약성

발달장애인들은 올바른 정보의 부재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무분별한 성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쉽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귀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음란물에서 본 장면을 장난처럼 여기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을 유포함으로써 성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 시대에 부모와 양육자들은 더 이상 미디어로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심리적인 의존도를 악용하여 촬영물 등을 얻어내는 방식의 가해 행위 유형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발달장애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가족 이외에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조차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친밀감을 정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친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는 성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현실에서 대체로 건강한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스마트폰 속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특정 다수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 SNS로 친절하게 대화를 통해 다가오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된 명확한 경계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관계에서의 타인과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것, 현실 속에서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사회 경험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SNS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잘못된 성 정보는 미디어에서 본 것을  모방하게 만들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답습하게 한다.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하나의 문제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대입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평 가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현대 성 문화가 반영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 | | | |
| 2. 디지털 매체가 성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 | | | | |
| 3. 음란물 중독의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 | | | | | |
| 4. 발달장애인들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취약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서울지방변호사회(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경성문화사
- UNESCO,「국제 성교육 가이드」(UNESCO, 2018)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 “음란물 중독의 종착점”, 아시아경제, 2020.08.
- Foubert, J. D., Brosi, M. W., & Bannon R. S. (2011). Pornography viewing among fraternity men : Effects on bystander intervention, rape myth acceptance and behavioral intent to commit sexual assaul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8(4), 212-231. https://doi.org/10.1080/107 20162.2011.625552

07

# 생활 속 성교육

## 목표

발달장애인 생활 속 성교육에 대해 이해한다.

## 세부 목표

1. 프라이버시와 성 분별력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춘기 변화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페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배경 정보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성교육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반복해서 제공될 때 가능하다. 성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에서 프라이버시와 성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갖게 해 주고 또 그런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주 양육자가 특히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사춘기에 발달장애인의 신체 변화와 심리 변화를 알아야 하고 또 이런 변화를 발달장애인이 알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 주 양육자의 교육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행동 변화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주 양육자는 성교육 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 등의 방법도 알아야 한다.

## 교수 범위

1. 프라이버시와 성 분별력
2. 사춘기 변화
3. 페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

**교수 내용**

## 1. 프라이버시와 성 분별력

발달장애인은 프라이버시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 화장실 사용, 목욕, 착탈의 기술을 숙달하는데 오래 걸리고 누군가가 그들의 사적 공간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다.
-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이는 주양육자가 더 오래 지켜보고, 감독하고, 개입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은 비장애또래보다 더 오래, 세밀히 감시당하고 감독받는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그들이 프라이버시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프라이버시”를 모르기 쉬우며 그로 인해 공과 사 구분이 어렵다. 성 관련 모든 주제는 공과 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어떤 신체부위를 사적이라고 배운 사람은 착탈의 하거나 위생활동 때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 집에서 공적 및 사적 장소를 구분하면 행동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규칙을 배울 수 있다.

공적 및 사적 활동을 알면, 집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어떤 대화 주제가 사적인지 알면, 말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배워야 하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은 자신의 몸, 집과 지역사회, 대화 주제, 그리고 행동 등 이다. 발달장애인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성 행동을 할 수 있기에 프라이버시 가르쳐서 사회적 적절성과 수용을 높여주는 사회규칙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발달장애인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도록 그런 행동을 모델링을 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르칠 수 있다. 남녀의 사적 신체부위를

가르칠 때 단순한 시각자료 사용이 도움 된다.
성 분별력은 몸과 관련하여 발달시키는 개념으로 신체 발달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있다. 발달장애인은 성 분별력의 발달이 지체될 수 있다. 부모가 그들의 사적 돌봄을 해 줄 때 자기 몸을 보고, 자신의 사적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자기 몸을 보는 타인을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며 그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몸에 대한 성 분별력이 줄어들거나 생기지 않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성 분별력이 어떤 것인지 모델링 해 줌으로써 그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 사적 신체부위와 관련된 사회규칙을 가르친다. 몸은 사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사적 신체부위들에 적용되는 사회규칙을 가르친다. 집이나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회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발달장애인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은 성교육에서 필수적이다. 공적 및 사적 개념을 이해하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되는 능력을 격려하면서, 사적(사람들에게 말하기 부적절한) 또는 공적(사람들과 말해도 좋은 것)인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분별력의 개념으로서, 성인들에게 나이, 수입, 성, 건강 관련 질문을 하거나 자신에 관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 공적 장소에서 자기 몸을 존중하는 성 분별력은:
- 신체 부위들은 가릴 필요가 있다.
- 사람들 앞에서 사적 신체부위을 만지면 안 된다.
- 공적 장소에서 사적 신체부위에 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 공적 장소에서 사람들의 몸을 존중하는 성 분별력은:
- 사람들의 사적 신체부위를 만지면 안 된다.
- 사람들의 사적 신체부위를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 사람들의 사적 신체부위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

## 2. 사춘기 변화 가르치기

발달장애인은 비장애또래와 유사한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기에 다음과 같은 교육으로 도움받아야 한다.

- 이차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변화가 눈에 띌 때 정보를 제공한다. 초기 변화가 있은 후 알려줄 때 더 정확하고 가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인이 몸을 다루고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면  쓸데없는 불안이 감소되고 독립과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춘기는 준비되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자기 몸의 변화를 알 때 성장과 관련된 책임을 다루는 자신감이 생긴다. 어떤 활동이 효과적이고 발달장애인이 더 잘 알도록 정보와 활동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주 양육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 경험에 의지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시각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려줄 때 잘 배운다.

남자의 사춘기에 음낭과 음경이 커지고, 수염, 체모, 몸무게가 늘며, 키와 골격이 커지며, 변성이 일어난다. 여드름이 나고 체취가 강해지며 내부 생식기관이 커진다. 감정 변화가 크고, 자연스러운 발기와 사정을 한다. 발기와 사정을 설명할 때 그림 자료를 사용하고, 청결과 사적인 곳에서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현상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임을 설명해 준다.

여자의 사춘기에 가슴 발육, 체모, 키와 몸무게가 늘며, 여드름이 나고 체취가 강해지며 내부 생식기관이 커진다. 신체적 성숙의 정점인 월경과 함께 감정변화가 생긴다. 패드 교체와 월경주기를 체크하고, 청결과 사적인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현상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임을 설명해 준다.

생식기 만짐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몸을 탐색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한다.

- 남성 생식기는 쉽게 접촉할 수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쉽고 더 자주 자위행위 하는 경향이 있다.
- 여자의 자위행위 시작에는 차이가 있다. 자기 몸을 탐색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 생식기 쾌감을 부지불식간에 알게 된다. 또 다른 아이들로 인해 자위행위를 알게 되거나 성관계를 통해서 혹은 나중에 우연히 자위행위를 하게 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의 자위행위를 다룰 때 고려할 점:

-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크기에 자위행위는 사춘기와 성인기 성적 표현의 기본 형태일 수 있다.
- 프라이버시를 체득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은 자위행위를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하기 쉽다.
- 자위행위와 관련된 사적규칙을 모르고 또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반복과 강화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생식기 만짐의 문제는 공적 장소나 적절하지 못한 때에 한다는 점이다. 생식기 만짐은 사적 활동임을 명확하고, 차분하며,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사적 장소를 알아내는 활동을 했다면, 그 장소를 말해주거나 보여주면서 사적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말해 준다. 발달장애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침실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데, 이때 부정적이거나 벌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생식기 만짐을 공적 장소에서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보이므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해 준다. 발달장애인은 사적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이 사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일관된 반복과 강화를 계속 제공받아야 한다.

## 3. 패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

발달장애인은 전후관계를 관련지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은 미묘한 사회적 상식과 관련 단서를 알아차리며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을 암암리에 배운다. 발달장애인은 그것들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 힘든 노력을 하지만 그마저도 습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의사소통 방법이 패럴렐 토크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을 주 양육자가 소리 내어 말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일어나는 행동이나 자신의 느낌을 주 양육자의 말로 표현해 준다.

주 양육자가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려 할 때 패럴렐 토크를 사용할 때, 먼저 무엇을 할지 설명해 준다. “아빠 자동차를 타고 갈건데, 우선 옷을 입어야 겠지? 어떤 옷이 제일 예쁠까? 이 파란 티셔츠는 어때, 이게 어울릴까? 아니면 입고 싶은 옷이 있을까?” 자세히,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행동한다. 이런 식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모들이 어린자녀들과 대화할 때 이런 방법을 자연스럽게 쓰곤 했을 것이다. 이 대화법은 말 자체와 그 사이의 전후관계를 알게 해 준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 패럴렐 토크는 발달장애인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화젯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주 양육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지낼 수 있게 해 준다.

발달장애인을 가르치는 것도 다른 비장애인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주 양육자는 모범적인 행동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주 양육자가 사용하는 규칙이 계속 바뀌고 결과도 매번 달라진다면 발달장애인은 그 모델을 따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 양육자는 모범적으로 행동하며 보여주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 양육자가 모델이 되었다고 해서 발달장애인이 그대로 따라 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이 자기 나이에 어울리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과 함께 스포츠 경기를 본다든가 즐겨하는 영화를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발달장애인이 입을 옷을 고를 때 주 양육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싶더라고 참아야 한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옷이 언제 왜 멋있어 보이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외식 나가려 할 때, 직전에 어떤 옷을 입을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정신없이 서두르지 말고, 미리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러 00 음식점에 가려고 하니 나도 가서 면도 해야지.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이겠지?'라고 말하면서 주 양육자가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되면, 옆에서 이를 보고 듣는 발달장애인도 외식 준비를 더 잘 하게 된다.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 애쓰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변화는 질책이나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는 칭찬을 통해 더 잘 성취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달장애인이 못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의 실패에 초점 맞추기 보다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주고 기대를 표현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지원해 준다. 칭찬할 때는 발달장애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크고 명확하게 말하고 용기를 준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발달장애인을 칭찬하는 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게 한다.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칭찬해 줄 때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

## 평가(세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리커트 문항)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프라이버시와 성 분별력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2. 사춘기 변화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3. 페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의 교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김영숙 역(2010),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 지도”, 박학사.
- Ballan, M.(2001), ‘Parents as sexuality educators for thei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ECUS Report”, 29(3), 14-19.
- Better Health channel, “Talking to children with cognitive disability about sex”, www.betterhealth.vic.gov.au
- Cole, C. L. & Levinson, T. R.(2002), ‘Effects of within-activity choices on the challenging behavior of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4(1): 29-39.
- Couwenhoven, T.(2007), “Teaching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bout their bodies, boundaries, and sexuality: A guide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Woodbine House. ISBN-10: 189062733X

08

# 함께 성장하기

## 목표

주 양육자와 발달장애인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세부 목표

1. 성적 발달에 따른 적절한 터치와 애정 표현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주 양육자의 가치, 기대, 권위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 양육자와 발달장애인의 성장에 협력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배경 정보

터치와 애정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함께 변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과학적 성 지식이 아닌 주 양육자의 가치, 기대, 권위를 전달해 줌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성교육이다. 주 양육자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성장해 가는데 있어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며 동반해 주는 협력자가 필요하며, 성교육은 인간되어가는 지속적인 여정임이 강조된다.

## 교수 범위

1. 터치와 애정 표현
2. 주 양육자의 가치, 기대, 권위 전달하기
3. 협력자를 찾고 함께하기

**교수 내용**

## 1. 터치와 애정 표현

발달장애인은 애정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는 널리 퍼져있는 통념이다. 터치와 애정의 욕구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단지 발달장애인은 이 욕구를 사회적으로 수용할만한 방식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차별적 애정 표현을 하도록 부모, 전문가, 때론 낯선 사람들에 의해 종종 요구받는다.

터치, 애정, 친밀감은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발달장애인은 종종 애정을 무차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수용을 위협받고, 취약성을 늘리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터치, 애정, 친밀감을 박탈당하지 않으면서 사회규범에 맞게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이다.

터치와 애정 관련 사회규범은 종종 모호하고 문화와 맥락에 따라 변한다. 발달장애인의 터치와 애정 오류는 주로 정보의 부족이나 특정 관계, 상황, 맥락에서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일반화할 수 없어서 일어난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가볍게 안는 것은 적절할 수 있으나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 또는 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안으면 안 되는 것이다. 팔을 두르는 것은 친한 친구에게는 괜찮으나 상사에게는 수용되지 않는 행동이다. 어떤 맥락과 상황, 대상에서의 터치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지 가르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피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터치와 애정 표현은 그것이 비장애또래가 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보이기 쉽다. 터치 규칙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 양육자는 흔히 잊어버린다.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을 그들의 생물학적 나이보다 발달적 맥락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할 때 경각심을 갖고, 그들이 나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터치에 주 양육자가 무관심하면,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을 성숙한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로 계속 보게 된다.

나이에 적절한 터치와 애정에 관한 딜레마가 표출되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안내자로서 또래들을 사용한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비구어적 단서를 알아채지 못하므로 직접 교수와 구어 피드백이 필요하다. 또래들은 발달장애인에게 거울로서 행동할 수 있다. 좀 더 수용할만한 터치와 애정 형태를 발달장애인이 알 수 있게 하면서 부적절하게 터치할 때 피드백을 주게 할 수 있다.

둘째,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상상해 본다. 어떤 유형의 터치와 애정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면, 발달장애인이 사회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한다. 발달장애인 또래, 동료는 그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셋째, 터치하는 이유와 터치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고려할 또 다른 맥락이다. 구어 능력이 제한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종종 터치한다. 그러나 터치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다. 팔의 터치는 대개 수용할만하나 엉덩이나 가슴을 찌르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발달장애인의 무차별적인 애정표현을 격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주 양육자의 가치, 기대, 권위 전달하기

주 양육자가 가족이나 가족 밖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며, 어떤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는지 보면서 발달장애인은 주 양육자의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배운다. 발달장애인은 주 양육자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며 체험을 통해 배우고 싶어 한다. 주 양육자의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함께 구체적인 경험을 한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같지 않다. 발달장애인은 주 양육자가 보여주고 싶은 주 양육자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주 양육자를 본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치관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방법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친구들의 좋은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한다. 발달장애인의 호기심, 독립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격려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격려한다. 발달장애인의 어떤 행동을 비판할 때 일관성을 갖는다. 발달장애인의 잘못된 행동을 야단칠 때 주 양육자가 부정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동임을 알게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말해준다. 발달장애인은 집과 학교/기관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통제받고, 상과 벌을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있음을 기억한다. 가치관을 심어줄 때, 체벌이나 야단으로 잘못된 부분을 부정하기보다 잘한 것을 인정해 주고, 격려와 칭찬을 해 주는 긍정적인 강화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알아라.

주 양육자가 발달장애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이를 발달장애인이 알게 한다.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꿈을 가질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존중해 주고 그 꿈이 발달장애인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양육자는 발달장애인이 꿈을 갖게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사람이다.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꿈은 목표와 다르다. 목표란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꿈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하지만 성취하기를 백프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꿈을 갖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꿈과 비슷한 기대를 발달장애인은 받아야 하며 또 그 기대를 달성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발달장애인도 소속감과 그곳에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발달장애인은 가족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게 없으면 성취도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이 기대하거나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발달장애인을 억압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능력 밖의 일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모든 다양한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재미있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 양육자의 역할은 발달장애인이 할 줄 아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발달장애인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대는 집안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술과 옷을 갖추어 입는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외출하며,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이 자랑스럽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기술과 인사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단정한 복장과 자신을 가꾸는 기술은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에 매우 중요하다. 양육자가 발달장애인에게 갖는 기대는 그에게 그대로 반영된다. 발달장애인이 사람들의 기대, 소속감, 목적의식, 희망을 갖고 자란다면 나름대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3. 협력자를 찾고 함께하기

주 양육자와 발달장애인에게 호감을 갖고 좋게 말해 주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면 주 양육자는 희망을 갖고 자존감을 키우며 발달장애인의 능력에 확신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있는 다른 주 양육자들과 일찍부터 접촉하는 게 도움 된다. 협력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발달장애인을 자랑스러워하는 주 양육자들과 관계한다. 긍정적인 주 양육자들과의 모임은 친목적 성격을 띠며 상호협조적이다.

시스템을 조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삶을 위한 통찰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 양육자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주 양육자들은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열성적인 주 양육자는 지금까지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고, 그런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단체에는 주 양육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름길이나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위험 상황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들은 장애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없고, 각 사람의 인격은 유일한 것이고, 매력적이며,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다른 주 양육자들도 자신만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발달장애인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주 양육자는 할 수 있다.

친구관계를 맺는다. 친구들은 온전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적 지원네트워크가 된다.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친구 관계가 맺어진 다른 주 양육자들과 의논하고 필요시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우정을 키워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우정도 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발달장애인과 주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태도를 가진 전문가를 찾는다. 발달장애인에 대해 주 양육자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 양육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는 전문가를 찾는다. 주 양육자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발달장애인에 관해 알려 주고 어떻게 도움받고 싶은지에 대해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 양육자는 자신과 발달장애인이 전문가로부터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고 수용되는 것을 가장 바란다.

주 양육자와 발달장애인이 성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협력자들(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교사, 전문가 등)과 계속 함께 해 가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사랑과 인정, 지지를 통해 자기인식과 자존감을 키우며 미래가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듯 주 양육자도 사랑과 인정, 지지를 통해 자존감과 희망을 가진 존재로 성장해 간다. 긍정적 시선과 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해 주는 협력자들과 함께 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경험을 할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인간되어감을 돕는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그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 평가(세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리커트 문항)

| 평가 항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성적 발달에 따른 적절한 터치와 애정 표현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2. 주 양육자의 가치, 기대, 권위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3. 주 양육자와 발달장애인의 성장에 협력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 | | | |

## 도움되는 문헌


- 신현기·정진옥 역(2009), "지적장애인의 성교육...그리고 그 너머의 빛", 시그마프레스.
- 정순영·김재홍 역(2008), "어른이 되게 도와주세요", 커뮤니티.
- Couwenhoven, T.(2001), 'Sexuality education: Building a foundation for healthy attitudes', "A Resource for Families and Other Interested in Down Syndrome and Related Disabilities", 4(5): 1-3.
- Mittler, P., Mittler, H., & McConachie, H.(1986), 'Working together: Guidelines, for partenership between professionals and parents of child and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Guides for Special Education" No. 2. Unesco.
- "A Guide for working with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or disabilities", http://www.foundationyears.org.uk

##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지원사업 안내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지원사업은 한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2018년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근거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은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가족(형제·자매),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의형, 상담형, 토론형, 사례연구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성인권 교육 외에도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부모교육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공공후견, 권리구제(형사·사법절차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관련 문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수행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생활 속 지도를 위해 2019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①,②권을 발간하고,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집 『이것도 성폭력이에요?』를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표준화된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2020년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 탐색 연구』보고서와 2021년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그리고 2022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권교육의 주제·방법론 확장을 위한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특히 2022년에는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중앙센터**
T. 02-3433-0742

**2 서울센터**
T. 02-2135-3635

**5 인천센터**
T. 032-715-4367

**10 경기센터**
T. 031-548-1393

**9 세종센터**
T. 044-414-9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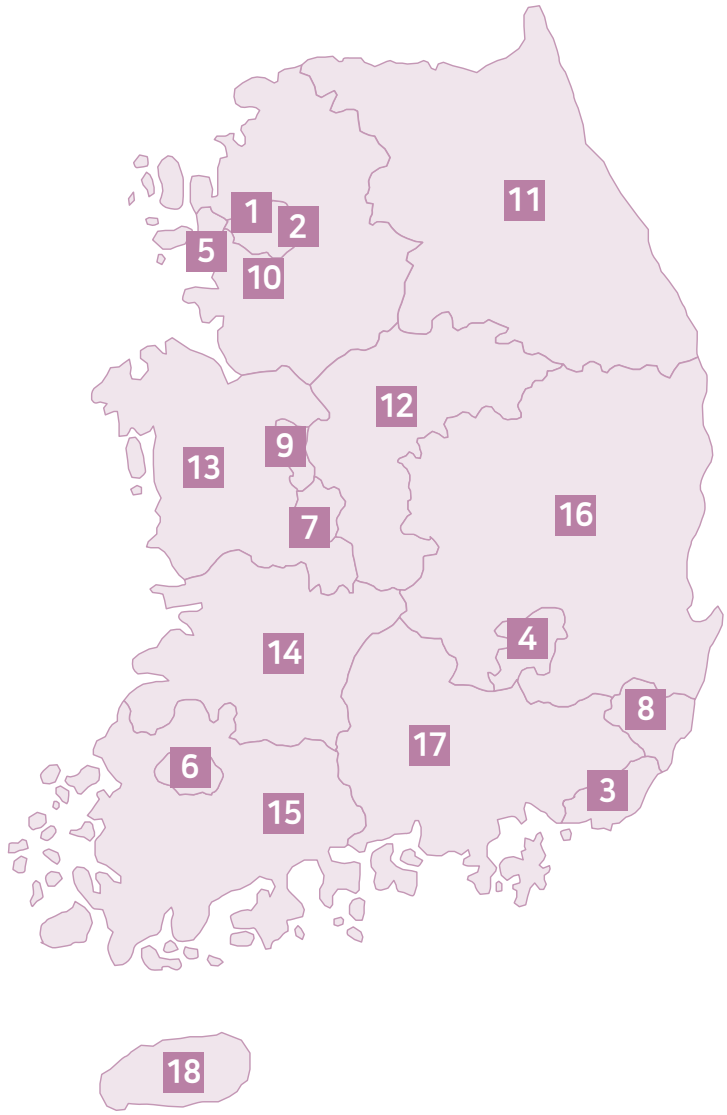
**13 충남센터**
T. 041-415-1215

**7 대전센터**
T. 042-719-1090

**14 전북센터**
T. 063-714-2610

**6 광주센터**
T. 062-714-3352

**15 전남센터**
T. 061-802-1062




**11 강원센터**
T. 033-817-2358

**12 충북센터**
T. 043-716-2160~9

**16 경북센터**
T. 054-805-7310

**4 대구센터**
T. 053-719-0340

**8 울산센터**
T. 052-710-3154

**17 경남센터**
T. 055-716-2390

**3 부산센터**
T. 051-714-7360

**18 제주센터**
T. 064-803-3714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seoul/mainPage.do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

**발 행 일** : 2022년 11월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7층
중앙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Tel. 02-3433-0755
Fax. 02-3433-0739
http://www.koddi.or.kr

**편집ㆍ인쇄** :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 본 매뉴얼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